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후원미사는 16일, 5월 후원미사는 21일, 6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8년 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32,649,575	전월이월금	2,771,428
지 로	3,215,360	우리은행	16,575,277
국민은행	4,867,000	하나은행	1,376,000
조흥은행	105,000	신한은행	1,085,000
외환은행	467,500	제일은행	170,000
농 협	1,357,000	기업은행	520,000
우 체 국	40,010	지정기탁	10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3,45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3,821,029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10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30,196,029	잔액(이월금)	2,453,546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3 / 제21호

펴낸날 2018. 3.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 즐거운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후원자님과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머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한해를 살아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 충남 태안에 있는 내리캠프장이라는 곳에서 연피정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목터를 떠나 오롯이 저를 위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9년째 이주사목을 해오면서 저 역시 이주민인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주사목은 이주민을 위한 사목이기도 하지만 원주민 역시 사목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은 새로운 이들을 맞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인종, 언어 등이 만나 충돌하거나 융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동화, 계도화, 토착화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화는 이주민이 원주민 안으로 들어가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원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계도화는 이주민이 원주민 안에 들어가 살지만 이주민의 고유한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주민과 원주민 서로 변화 없이 살지만 원주민은 불편해 합니다.

토착화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살면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을 접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 세 가지 안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원주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반대로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최고로 좋은 모습이지만 성경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어렵고 이질감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의 접점을 찾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 방법을 사회교리에서 찾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신도의 삶에서 증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교회는 상호존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것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고집해서도 상대의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며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는 후원자님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잘 조화되어 토착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우리의 자리에 예수그리스도께서 넓게 자리 잡도록 내어 주시면 어떨까요?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했던 성서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었다."(마태25장35절)

2018년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 공동체 소식

#### 위원회 소식\*

사단법인 서울가톨릭 이주난민센터는 지난 3월 10일에 법인이사장 유경춘 주교님과 그 외 이사진과 운영위원 참석으로 제2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기관의 감사보고와 2017년도 사업결과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등 다섯 개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한 지 첫 해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의 교류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땃(Tết)'이라고 불리는 음력설을 쇠는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땃 응우옌 단(Tết Nguyên Đán)'입니다. '땃'은 순수 베트남어로 명절이라는 뜻이며, '응우옌 단'은 한자로 으뜸 원(元), 아침 단(旦)이다. 그해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명절은 유교라는 공통된 문화에 베트남 고유의 풍습이 더해져 이색적인 면모와 친숙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귀성길과 귀경길은 오토바이 행렬로 상상 이상의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본급의 100%를 설 연휴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베트남 설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씀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행사(LOC THANH 녹탄. 뜻: 봄의 새싹이 움튼다)를 합니다. 이들은 이 말씀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메시지라고 여기고 말씀을 기억하며 지냅니다. 말씀사탕으로 세뱃돈을 걸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공동체는 설날에 고향과 가족을 떠난 베트남 이주민 300여명이 말씀사탕의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 베트남 전통음식을 나누며 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는 지난 한해 수고해준 봉사자 40여명과 함께 2월 15일 당일로 알펜시아 스키장과 17일에는 봉사자 친선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늘 봉사해주시는 자국민 봉사자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써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실행사



▲ 11회 졸업식

### 문화알림 식사에절 2편



목축지가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고원국가인 몽골은 토지 모두가 척박하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목생활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제품과 고기류를 사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는 식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자를 때는 칼날이 자신의 몸 쪽을 향하도록 잘라야 하고, 음식과 음료를 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은 음식이 무거울 때 오른팔을 지탱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차는 받는 즉시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그 전에는 식탁위에 놓지 않아야 하며, 음식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식과 시음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식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식사 중에는 다리를 포개지 않아야 합니다.

태국의 음식문화는 중국, 불교, 인도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음식문화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문화로 중국식 냄비, 장류, 면류 등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음식문화는 동물의 살생을 금하고 있어 주로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인도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음식문화는 카레와 칠리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태국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입술을 오므리고 먹으며, 입안에 있을 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포크는 손가락 위에 음식을 올리거나 손가락에 붙은 음식을 떼어내는 용도로 쓰일 뿐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국물 안에 음식 또한 손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서양레스토랑 등에서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시작 전 모든 사람들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며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음식을 다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음식은 다 먹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접대하고 남은 음식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거나 가족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 음식을 권유 받았을 때 내키지 않아도 조금 맛보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 때 코를 푸는 것은 상당히 매너 없고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트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는데 필리핀에서는 '너무 맛있었어요'라는 표현을 트림으로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필리핀 집으로 초대받았을 경우 약속시간보다 15분~30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